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협소식 2008 제12호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 777 2013, 757 7851 FAX 02 778 7427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08. 1. 5 발행인 : 한홍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24회 가톨릭대상

사랑부문 전성민, 이덕림씨 수상

“이웃 사랑으로 하느님 사랑 실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12월 27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제24회 가톨릭대상 시상식을 열어 사랑부문 수상자 전성민(타대오, 74)·이덕림(젼마, 71)씨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는 축사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첫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를 인용해 이웃 사랑이 곧 하느님 사랑임을 강조하고, 평생을 이웃을 위해 봉사해온 두 수상자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염주교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 가톨릭대상 수상자들과 평협임원들의 기념촬영

심는 순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평협 회원 단체〉

-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 ▣ 한국가톨릭 경제인회
- ▣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
- ▣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 이사회
- ◎ 동정
- ◎ 교황님의 가르침



새해 축복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염수정 주교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무자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일터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서는 특별히 평신도들의 힘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결실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마침 올해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창립 40주년의 해이고, 이방인의 선교사 사도 바오로의 탄생 2000주년 특별회년으로서, 다시 한 번 사도직과 선교사명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 뜻 깊은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황님께서 올해 2008년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건전한 가정생활에서 평화의 근

본 요소들을 체험”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정은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온 인류의 요람이며, 생명과 사랑의 터전입니다. “인간 생명의 토대 위에, 모든 사회 질서의 원형으로 하느님께 제정된 최초의 자연 사회”인 가정을 이루는 책무가 바로 여러분 평신도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평화의 언어’와 정의로운 행동으로 세상에 참 평화를 건설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인류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더 생생한 인식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류의 삶 속에 평화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 쥐띠 해입니다. 사실 쥐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본능이 있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살아남는 민첩함과 근면함을 지니고 있으며, 재물과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입니다. 그러기에 쥐띠 해는 예로부터 풍요와 희망과 기회의 해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하느님의 뜻을 열심히 좇아 모든 사도직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서 남다른 열성으로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수상자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했다.

한홍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톨릭대상은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와 함께 이들을 본받아 우리 사회에 하느님은 사랑이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가톨릭대상이 우리 사회에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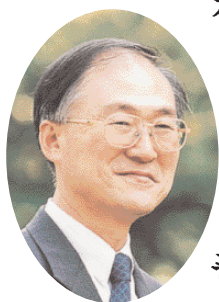


새해 인사

평협 40주년의 해,
성찰과 교육과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한홍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저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를 늘 사랑해 주시고 아
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에도 하느님의 은총
풍성히 받으시어 원하시
는 모든 일을 주님의 사랑 안

에서 모두 이루시기 기원합니다.

새해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저희는 이 선물을 고맙게 받아 뜻있게 쓰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40주년은 우리 문화에서 남다른 뜻을 갖는 것이어서 저희도 올 한 해를 좀 더 보람 있게 보내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세월 저희 자신과 교회와 사회를 복음화하는 일에 저희가 과연 제 구실을 하였는지 성찰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교회상과 평신도사도직에 대한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 교회의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에 따라 현세 질서를 쇄신해야 할 이

땅의 평신도 사도직 활동이 지향할 미래의 좌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할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저희는 평신도들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 자기가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기 위해”(1베드 3, 15) 평신도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교회의 평신도 사도직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각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서로 소통과 협력을 더욱 원활히 하도록 하여 평신도 교육이 더욱 알차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일진대 온 교회의 역량을 마땅히 선교에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도 모든 활동의 초점을 선교에 맞춰나갈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포럼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북녘 백성들이 종교의 자유를 비롯해 기본 인권을 누리며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날을 가능한 한 앞당기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교류를 강화하며 평신도 차원에서 한국 교회가 아시아와 세계 교회에 이바지하는 일에도 힘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제대로 이루려면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와 활동을 통한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이 모든 일을 제대로 이루어 이 땅의 평신도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하느님과 섬모님과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의 불씨로 자리잡기를 기원했다.

전성민씨는 수상 소감에서 “아내를 돌보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기 시작했으며, 11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가정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서 수상의 영광을 아내와 평화 호스피스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에게 돌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 한센병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이덕림씨는 “특별히 봉사라고 할 것도 없이 지난 40여 년간 그저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이처럼 큰 상을 받게돼 부끄럽다”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지갑도 비우고 영혼도 비워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시상식에는 심사위원장인 손병두 한국평협 직전 회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여규태 고문을 비롯한 한국평협 관계자들과 수상자 친지 등 100여 명이 이날 행사에 함께했다.

한국평협이 1982년 ‘신뢰회복운동’을 전개하면서 제정한 ‘가톨릭대상’은 그동안 사랑부문 38명, 문화부문 15명, 정의부문 2명, 특별상 2명 등을 시상했다. 수상자 중에는 단체 7곳, 고인 5명, 부부 1쌍이 포함됐다.

사랑·정의평화·문화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는 가톨릭대상은 복음정신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평화 구현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교회 안팎의 숨은 일꾼이나 단체에 수여된다.

이번에는 사랑부문에만 2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는데,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 사랑부문 전성민(74, 타대오)



비영리 민간
단체인 ‘평화
호스피스’ 회
장으로 치매와
그에 따른 합
병증으로 식물

인간이 된 아내를 11년째 사랑으로 돌보는 한편, 자신의 아내처럼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는 30대때부터 무려 40여 년 동안을 꾸준하게 복음정신과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아오며 세상과 교회를 위해 헌신해왔다.

특히 그는 자신도 이미 고령인데다가 퇴행성 관절염과 허리 및 목디스크, 고혈압 등 극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부터 말기암 환자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봉사해왔으며, 2004년 7월에는 ‘평화 호스피스’를 설립해 만 3년만에 전체 활동 봉사자 312명과 410명의 후원회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연중무휴로 무보수의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 사랑부문 이덕림(71, 줌마)



24세때인 1960년 한센병에 걸려 집을 떠나 전남 나주에 있는 요양 시설 현애원에 입원, 이곳에서 가톨릭신앙에 입교했다. 마을 구판장 일을 맡게 되면서 부녀회장 겸 성모회장

까지 맡아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됐고, 마을 구판장 일을 하면서 아이들 옷을 재봉틀로 만들어 팔았는데 당시 재봉틀 바늘에 찔려 손가락 모두를 자르는 처지가 됐다.

지체부자유, 정신장애 할머니들이 사는 클라라집의 사장을 맡아 불우이웃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남 산청군의 성심원(한센병 시설)에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돌보며 자신의 병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FTA,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소득 불균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국평협, 제2차 사회포럼 실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민족들의 발전」회칙 반포 40주년을 맞아 회칙이 가르치고 있는 경제정의의 측면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소득 불균형의 극복을 다루는 사회포럼을 열고, 교회와 사회 각 계의 의견을 나눴다.

이번 사회포럼은 2007년 내내 각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참여한 대립으로 온 나

라를 뜨겁게 달궜던 FTA문제를 다룬 제1주제 ‘FTA,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양상을 다룬 제2주제 ‘소득의 불균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이어서 가톨릭교회, 노동계, 경영계, 중소기업계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진호 박사(경쟁력 평가원장)는 FTA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주제발표를 통해 “근시안적인 접근보다는 미래를 내려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다”며, “무

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정한 무역을 통해 상호 발전하게 되며, 무역의 선진화가 곧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1985년 이스라엘과 미국의 FTA협상 결과에 따른 이스라엘 경제의 발전을 예로 들며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교리에서 강조하듯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 그 자체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고, “고도로 공업화된 국가들과 농산물이나 원료를 수출하는 나라들과의 무역 불균형은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한다며, “세계화가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 사회 정의가 요구하는 원칙에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조은상 박사(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는 두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부의 편중과 가난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원인을 각종 통계자료로



▲ 조은상 박사



▲ 2007 사회포럼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제시하면서 “부의 편재로 인한 엄청난 도덕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 또한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세계최고의 부자가 세계최고의 자선가”가 되는 사례를 본받고 “부자들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무지를 끊임 없는 교육과 제도개선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 불균형과 관련해 ① 신자유주의의 확산, ② 기술진보로 인한 기술격차 심화, ③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구조적 양극화의 심화, ④ 고령화 사회 진입과 고령층의 취업 애로, ⑤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결핍 등을 그 원인으로 진단하고, “신자유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노사정이 함께 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인재양성과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확산하고 노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원”하는 것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을 위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교회의 애덕사업 실천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가톨릭학교법인에서 입학생의 5~10%정도를 가난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고 장학금을 준다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실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어상 박사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발표를 한 김어상 교수(서강대학교 교양학부, 한국평협 정의평화분과위원장)는 “이제 교회가 할 것은 철저한 현실 검증이지 무분별한 자선이 아니다.”라며 “무역이나 빈부의 격차

문제 모두 사랑의 질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3대 의무인 국방, 납세, 교육의 의무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발전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허영구 부위원장

이어서 허영구 부위원장(전 국민노동조합총연맹)은 “한미FTA의 체결을 강하게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왔지만 무역을 통해 물질적인 부의 성장과 전 지구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자유무역협정이 어느 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있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의 증가라든지 일자리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고, 스위스의 경우에도 미국과의 FTA가 국민투표의 결과로 체결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더 세심한 연구와 민주적 참여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바람직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정재화 실장

세 번째 지정토론자인 정재화 실장(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양국 간의 무역으로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많으며, 협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의 이익에 맞게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가능하면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동환 팀장(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협력팀)은 지정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힘의 질서 속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경제가

▲ 정재화 실장 건전하게 발전한 나라의 예에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포럼은 교회와 사회와의 만남이라는 부제 아래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논의하는 장으로 지난 2006년부터 한국평협이 실시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 실천”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30주 전과정



서울평협이 마련한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수료미사에서 민병덕(오른쪽) 신부가 전 과정 수료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다.

92명 수료식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12월 18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수료미사를 봉헌하고 1·2학기 전 과정 수료자 92명에게는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명의로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2학기 수료자 26명에게는 수료증을 줬다.

서울평협은 지난해 3월 4일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의회 과정을 개설해 12월 18일까지 평신도와 수도자 등을 대상으로 30주간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의회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삶을 위해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등 각자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한홍순 회장은 “최근 교황청을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서울평협에서 공의회 문헌 전체를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놀라워했다”며 “이번 교육과정은 세계교회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한국교회 자랑거리”라고 말했다. 전 과정을 수료한 대학생 김주용(펠리치아노, 25, 인천교구 소사본당)씨는 “학창시절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수강을 결심했다”며 “많은 것을 배운 유익한 과정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수료 미사를 봉헌한 담당사제 민병덕(교구 사목국장) 신부는 강론에서 “신학교에서도 제대로 다루기 어려운 많은 양의 공의회 문헌을 모두 마친 여러분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한다”며 “공의회 문헌 교육을 통해 좀 더 성장한 신자로서 실천하는 삶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평협은 공의회과정 모든 강의를 누리방(www.clas.or.kr) 자료실에 올려 수강할 수 있

도록 배려했으며, 평화신문은 지난해 4월 1일자(914호)부터 12월 23일자(950호)까지 전 강좌를 요약해 실었다. 서울평협은 2008년 올해에도 오는 3월 4일(화) 1학기 과정을 새로 시작하며 공의회 과정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평신도주일 기념 제3회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11월 12·13일 이틀 동안 지구별 15개팀 참가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2~13일 서울 주교좌 명동성당에서 ‘2007년 평신도 주일 기념 제3회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를 열었다.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시편 96,2)를 주제로 열린 합창제에는 서울대교구 15개 지구에서 각 지구를 대표하는 본당 또는 연합 성가대가 출연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특히 올해는 참가팀 모두 지난해 서울평

협이 주최한 우리성가 노랫말과 작곡 공모에서 뽑힌 성가곡을 1곡씩 지정곡으로 불러 의미를 더했다.

서울평협 문화분과(위원장 조남진 모니카)가 주관한 이번 합창제 참가팀으로는 1지구 중림동 약현 성가정 성가대와 그레고리오 성가대, 2지구 서교동 글로리아 성가대, 3지구 수색아가페 성가대, 4지구 세검정 성가정 성가대, 5지구 묵동 연합성가대, 6지구 연합성가대, 7지구 상계2동 아마쿠스 성가대, 8지구 구의동 세실리아 성가대, 9지구 길동 청년성가대, 10지구 신천동 유니파스 성가대, 11지구 역삼동 복스데이 성가대, 12지구 잠원동 파티마 성가대, 13지구 동작동 세실리아 성가대, 14지구 오류동 글로리아 성가대, 15지구 등촌동 성십자가 성가대가 출연했고, 서울 한남동 국제본당 연합성가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출연해 열띤 무대를 선사했다.

정진석(서울대교구장) 추기경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성가 노랫말과 작곡 공모 같은 창조적 작업이 계속될 때 우리 문화와 정서에 맞는 성가로 하느님과 더욱 일치할 수 있고 하느님의 참사랑에 맞들일 수 있다”고 새로운 시작을 격려하면서 “성가를 통한 복음 전파는 서울대교구의 ‘복음화 2020운동’에도 한몫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는 축하인사에서 “여러분이 노래부를 때 창조주께 대한 사랑이 함께하며 삶의 기쁨을 다시 울려 퍼지게 한다”면서 “합창제를 통해 여러분의 사명을 한층 더 깊이 깨닫고 이웃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도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11지구 역삼동 복스데이 성가대의 공연 모습

한홍순 회장은 “우리성가 연주는 우리 정서에 더욱 잘 어울리는 성가를 개발함으로써 온 겨레가 하느님과 더욱 일치하고 전례를 토착화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성가합창제를 계기로 생명의 복음을 온 겨레에 전하는 데 앞장서게 되기를 기원했다.

제2회 우리성가 노랫말 시상식



▲ 시상식 후 수상자들과 염수정 주교, 평협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우수상에 ‘기도’ 이호숙 헤드빅(서울 난곡성당)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주최한 제2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해 12월 14일(금) 명동성당 소성당에서 개최됐다. 우리정서에 맞는 성가의 창작과 육성으로 신자들이 하느님과 더욱 일치하도록 하며, 전례의 토착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성가 노랫말 공모에는 전국에서 52편이 응모되어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1편, 입선작 3편을 가려내 이날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으로 뽑힌 ‘기도’를 지은 이호숙(헤드빅, 난곡본당)씨가 상패와 상금 100만 원을 받았으며, △김춘화(베로니카,

청담동본당)씨가 우수상 상패와 상금 50만 원 △이명인(전교 가르멜수녀회) 수녀와 최효근(베네딕토, 수원교구 하안본당)·홍경자(베로니카, 삼성동본당)씨가 각각 입상작 상패와 상금 30만 원을 받았다.

염수정(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는 축사에서 “지난해에도 이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이 시상식에 참여하는 일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우리 말과 곡으로 이뤄진 성가를 통해 우리 신앙을 표현할 때 하느님과 좀더 가까워지고 또 세계교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성가 노랫말 및 작곡 공모에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심사위원을 맡은 심재기 전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는 심사평에서 “가장 고귀한 언어인 기도의 언어, 그 가운데 성가의 노랫말에 관심을 가지고 응모하신 모든 분들이 복된 사람들이다”며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하시어 우리 교회가 지닌 평신도의 명예로운 전통을 길이 이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한국평협은 이 노랫말들로 내년 4월말까지 우리성가 작곡을 공모한다. 제2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수상작 5편 가운데 자유롭게 골라 전례에 쓸 수 있는 2성부 이상 합창곡으로 작곡하는 것으로, 누구나 응모 할 수 있다. 최우수상(1편)에는 상금 200만 원, 우수상(2편)에는 상금 각 100만 원, 그리고 장려상(3편)에는 상금 각 50만 원을 수여한다.

다음은 심재기 교수의 심사평과 김형영 시인의 격려사 요약이다.

〈심사평〉

심재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교우 형제, 자매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다가 5년 전에 정년 퇴임한 세검정성당 교우 심재기 바오로입니다.

말이란 생각과 느낌을 남에게 전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이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고 많은 은총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언어는 인간이 표현하는 언어 가운데 가장 고귀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언어인 기도 가운데에서도 더 알짜배기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찬양의 노래’로 표현된 기도입니다.

또한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행동 가운데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존귀하심,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절행위, 곧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 미사일 것입니다. 그 미사 예절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짜내어 지어 본 노랫말 가사는 말 중의 말이요, 행동 중의 행동인 미사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봉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 하느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른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함께 참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모두 52편의 노랫말이 응모되었는데 예비 심사를 거쳐서 20여 편의 작품이 저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돌려가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류의 현상 모

집이 있습니다. 노랫말 현상 모집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 어떠한 현상 모집에서이건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 즉 당선 작품의 영예를 얻는 것은 “독창성”입니다. 독창성은 남의 흉내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노랫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할 수 있는 기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노랫말로 표현할 것인지 그것이 심사의 핵심요소였다는 것만을 말씀드립니다.

당선되신 다섯 분 모두와 그 가족, 친지, 이웃 분들에게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계속하시어 우리 교회가 지닌 평신도의 명예로운 전통을 길이 이어 주실 것을 간

〈격려사〉

김형영 스테파노(시인, 한국가톨릭문인회 회장)

수상자 여러분, 축하합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의 노랫말이 아름다운 성가로 들을 수 있게 되겠지요?

이렇게 만나니 반갑고 기쁘고 고맙기까지 합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느낀 것입니다만, 타성에 젖은 상투적인 표현, 아무리 아름다운 글이라도 교훈적이고 교리적인 표현 들은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사에서도 크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그런 글들은 창조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노랫말은 자기의 신앙생활 안에서 느끼고 체험한 것을 편한 마음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창적인 작품, 감동을 주는 작품은 그런 마음밭에서 탄생합니다.

칠오(7 5)조나 사사(4 4)조의 정형화된 표현도 지나치면 가사의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말

에서 그런 정형화된 표현이 노랫말에 적합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그런 외적 형식에 의존하면 읽는 이를 식상하게 합니다.

끝으로, 성가 작사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의 말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여기서 ‘시’를 ‘가사’로 바꿔 읽으시기를).

“종교적인 시 거의가 왜 좋지 않은가. 그 원인은 작가가 주로 일종의 신심이 깊다는 자신의 부정직에 있다고 생각한다. 신앙시를 쓰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느꼈으면 하는 것을 쓰기 때문이다.”

저는 이번 심사에서 이 점을 많이 감안하였음

우리성가작곡공모 안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우리 정서에 잘 어울리는 성가의 창작과 육성으로 신자들이 하느님과 더욱 일치하도록 하며, 전례의 토착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우리성가 작곡공모를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응모기간 : 2007년 12월 ~ 2008년 4월 말
- ◆ 당선작 발표 : 2008년 5월 중
- ◆ 내용 : 제2회 우리성가 노랫말공모에서 선정된 5편(www.clak.or.kr 참조) 중 자유로이 골라 전례에 쓸 수 있는 2성부 이상의 합창곡으로 작곡할것, 악보와 1절 이상 연주한 MR을 제출
- ◆ 시상 : 최우수상 1편 / 상패와 상금 2백만원
우수상 2편 / 상패와 상금 각 1백만원
장려상 3편 / 상패와 상금 각 50만원
- ◆ 보낼곳 : 서울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회관 510호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무국
☎ 02-777-2013, 757-7851
E-mail: clak@catholic.or.kr

제4회 사랑·생명·가정 사진공모전 전시회와 시상식, 대상에 김동신씨 ‘상봉’

11. 14~21 세종문화회관 별관 제2전시실에서 전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주최하고 가톨릭사진가회(회장 임효철)가 주관한 ‘사랑·생명·가정 사진전’ 시상식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별관 제2전시실에서 열렸다.

민병덕(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신부와 한홍순 회장, 최대식(서울대교구 사진가회 담당) 신부, 서울평협·사진가회 관계자, 수상자와 가족 등이 함께한

이날 시상식에서 김동신씨가 할아버지가 손자를 만나는 장면을 담은 ‘상봉’으로 대상을 받았으며, 우수상 2명과 가작 3명, 입선 42명 등 총 48명이 수상했다.



▲ 대상 수상작 ‘상봉’



▲ 제4회 사랑·생명·가정 사진공모전 시상식

문화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네

번째 행사를 치른 사진전에는 이번에 324점이 접수되어, 전년에 비해 출품자가 늘고 ‘사랑·생명·가정’이라는 주제를 잘 표현해 작품성이 높아지고 질적으로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동신(37, 서울

신정동)씨는 “사진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대상을 받게 돼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가족과 사랑, 생명이라는 주제로 사진을 계속 찍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상작은 21일까지 일주일간 전시돼 하루 200여명이 관람하는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평협 선교포럼 실시

11월 10일 구로3동 성당에서 제4차 포럼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구로3동 성당에서 교구 내 각 본당 선교분과장과 위원, 레지오 간부 등 약 300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돌아오는 교우를 위한 사목적 배려’라는 주제로 제4차 선교포럼을 실시했다. 이날 주제강의를 맡은 정태영 신부(사목국 선교·전례사목 담당)는 서울대교구 시노드의 ‘쉬는 교우 관련 설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 해결 방안으로 “영세 초기에 냉담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영세 초기 신자들을 위한 교육과 개인적인 차원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영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돌아오는 교우들의 고해성사 이전 단계의 특별



▲ 구로3동 성당에서 열린 4차 선교포럼의 강의모습

한 전례 등의 사목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부모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재 형식적

인 대부모 관계를 개선해 좋은 대부모 되기 운동을 펼친다면 쉬는 교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대림동 성당의 김용철씨가 ‘나의 선교활동 10년을 회고하며’라는 주제로 발표한 선교사례를 통해 지난 10년간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두선교와 신앙상담 등의 활동으로 2천 여 분의 새로운 신자를 인도한 경험을 나눴다.

문래동 성당의 김종찬씨는 ‘복권나눔 선교’라는 주제의 선교사례 나눔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승객들에게 주보를 나눠주고, 2001년도부터는 개인택시로 전환하여 움직이는 선교활동의 장으로 택시 승객을 비롯하여 지하철 입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당점확률 100%인 복권(선교 유인물)을 나눠주는 사례를 발표했다.

서울평협 선교분과(위원장 김길성 카롤로)가 주관한 이날 선교포럼은 서서울지역 교구장대리인 조규만 주교와 사제단의 집전으로 파견미사를 봉헌했는데 조주교는 이날 강론을 통해 “선교 이전에 우리에게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 요즘 세태를 보면 웰빙을 위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웰빙을 위해서는 체육관으로 가고,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웰빙 즉, 구원을 향해 가야 한다.”고 선교에 임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본당 선교계획 수립’ 위한 제5차 선교포럼

한편 2007년도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5차 선교포럼이 지난 12월 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본당 선교계획



▲ 5차 선교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본당의 복음화율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수립'을 주제로 개최됐다.

정태영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 선교·전례 담당)는 주제강의를 통해 지난 2006년 제1차 아시아 선교대회 자료집 '아시아 선교: 예수님 이야기하기'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아시아 인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내 자신 스스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만들어진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한다."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선교는 변화된 삶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당별 선교계획을 수립하는 조별작업과 발표를 통해 "본당별로 구체적인 선교목표를 정하고 단계적 입교예식을 통해 냉담자를 예방하고 돌아오는 교우를 위한 예식도 본당별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장, 평협 담당사제)는 이어서 봉헌된 감사미사 강론을 통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교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니 하느님의 신비에 놀랍다."며 "교구장님께서 지난 2005년 주창하신 '복음화 2020 운동'에 모두 동참하여 열심히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자."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서울평협은 2007년도에 교구 내 각 지역(동, 중, 서)별로 분산해서 선교포럼을 개최해 지역

선교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큰 반향을 얻었으며, 2008년도 역시 네 차례의 선교포럼을 열 예정이다.

서울대교구 평신도 운동·단체장 워크숍 열어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 운동·단체장 워크숍이 지난 11월 17일 서울 가톨릭 사목센터 1층 강당에서 열렸다. 운동·단체장들의 친교와 나눔을 통해 서로 연대하고 세상의 복음화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나아가기 위해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단체분과(위원장 김남영 사도요한)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평협에 등록된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 운동·단체장 워크숍에 참석한 단체장들과의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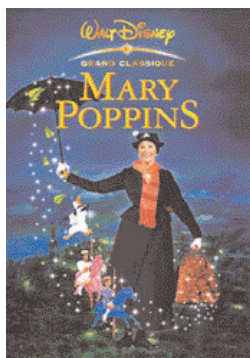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서울평협 한홍순 회장의 주제강의 '평신도 교령을 통해 본 단체사도직 활동'과 분임토의, 나눔의 순으로 이뤄졌고, 약 40여 명의 단체장과 회원들이 진지한 자세로 일정에 함께 했다.

한홍순 회장은 "우리들의 사명은 복음전파이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야말로 바로 단체사도직활동"이라며 "교황님

께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단체사도직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체 하나를 놓고 보면 매우 열심히 활동을 잘 하는 반면 단체 간의 친교나 연대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며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분임토의를 통해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서로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서로간의 친교가 우선돼야 하며 평협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좋은 영화보기



▲ ‘메리 포핀스’ 포스터

신앙과 도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영화를 함께 보자는 취지로 서울평협이 시작한 ‘좋은 영화보기’는 교향청에서 선정한 위대한 영화 45편과 미국 주교회의에서 매년 선정하는 좋은 영화 목록을

위주로 해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회의실에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실시되고 있다.

지난 11월 26일에는 2차 대전 직후 가난과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로마시내를 배경으로 일 자리를 얻기 위해 침대시트를 전당포에 맡겨 자전거를 구하고, 또 이를 도둑맞으면서 일어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1948년 작 ‘자전거 도둑’을 상영했고, 12월 31일에는 연말을 맞아 메리 포핀스라는 마법사를 통해 아이들과의 사랑을 되찾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1964년 작 ‘메리 포핀스’를 상영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연수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윤성 요한 비안네, 담당사제 김종기 세례자 요한 신부) 상임위원들은 11월 25일 대전 성남동 청소년 회관에서 오춘석 스테파노, 정영숙 데레사 대전 ME 부부(평협 가정분과장)가 진행하는 ‘사랑의 언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수를 실시했다. 김윤성 평협 회장 부부를 비롯해 부부와 개인으로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가정공동체 안에서, 특히 부부 사이 사랑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김종기신부(담당사제)는 “평협 상임위원으로 봉사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줄 안다. 가정 공동체의 화목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다. 늘 애쓰심에 감사드린다.”며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교구 신심사도직 단체·동교회 송년모임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2월 15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성남동 청소년회관에서 교구장 유홍식 주교를 비롯해 박종우 총대리, 김종기 담당사제와 함께 24개 단체, 5개 동교회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모임을 가졌다.



▲ 신심사도직단체 동교회 송년모임에 참석한 각 단체, 동교회

다.

이날 모임에서는 2008년 대전교구 설정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구 단체와 동호회가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데에 뜻을 모으고 연합전시회와 까리파스 축제 등 함께 교구 설정 60주년을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홍식 주교는 인사말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단체가 각자 주어진 역할을 통해 교구를 위해, 하느님 나라를 위해 수고해주심에 감사 드린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십자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교구에서 60주년을 맞아 실시하기로 한 ‘한끼 100원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하셨다.

2006년에 시작한 신심사도직단체·동교회 송년모임은 올해 세 번째 모임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 모임을 정례화해서 정기모임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144차 상임위원회의 개최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이정우



▲ 제144차 상임위원회의

마르티노, 담당사제 신부)는 11월 17일 저녁 제 144차 상임위원회를

울산 복산성당에서 소집했다. 울산지역 대표 담당사제인 이택면 예로니모 신부는 인사말에서 “진정으로 평신도와 함께하는 평협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울산지역 임원들을 포함해 38명의 위원들이 모여 2007년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사업 마무리와 2008년도 부서별 사업계획 수립, 2007년도 예산 변경, 제10호 평협 회지 발간과 소식지 발간, 지구별 회의와 기타 안건을 토의했다.

제4대 부산교구장에 황철수(바오로) 주교 임명 및 착좌



▲ 제4대 부산교구장 황철수 바오로 주교

부산평협과 교구민들은 지난 12월 28일 주교좌 남천성당에서 착좌한 황철수 바오로 주교를 제4대 교구장으로 맞아들이는 기쁨을 안고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부산교구민들은 신



▲ 황철수 바오로 주교의 교구장 임명을 축하하며 평협 회장단에서 축하인사와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다.

임교구장을 위한 기도와 함께 평일미사 162,653회, 성체 조배 162,537회, 희생 봉사 270,745회, 십자가의 길 108,343회, 묵주기도 813,950단, 화살기도 1,624,621회를 전교구민 이름으로 준비한 영적예물을 신임교구장 취임식 때 드렸다.

황 주교는 지난 2006년 2월 부산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됐고, 2007년 6월 전임 교구장 정명조 주교 선종 이후 교구장 직무대행을 수행해 오다가 2007년 11월 교황에게서 제4대 부산교구장으로 임명됐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 교구 사제단, 신자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착좌식은 주교회의 의장 장익 주교(춘천교구장), 최창무 대주교(광주대교구장), 최덕기 주교(수원교구장), 권혁주 주교(안동교구장), 조규만 주교(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최재선 주교(부산교구 제1대 교구장), 박정일 주교(전 마산교구장) 등 한국 천주교 주교단 및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와 부산교구 사제단의 입장, 교구장 임명장 낭독, 주교단과 평화의 인사, 신임 교구장 착좌, 교구 사제단 및 신자들의 순명서약, 사제단과 수도자 및 교우 대표와 평화의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는 인사말을 통해 “교회와 사회가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부산교구처럼 큰 교구에서 교구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한데 교황이 맡긴 이 직무를 믿음과 형제적 사랑으로 수락한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강복과 인사를 전했다. 이어 “그 어떤 주교도 이러한 짐을 혼자 지고 갈 수는 없다”며 황 주교가 교구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제, 수도자, 신자들이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황 주교는 취임사를 통해 “하느님 백성의 믿음과 사랑에 잘 부합할 수 있을지, 또 우리 교회에 새롭게 다가오는 안팎의 도전들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나 ‘목숨을 버림으로써 목숨을 얻는다’는 요한 복음 말씀을 인용하고 “버림으로써 얻는 삶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삶을 전한다는 것”이라며, “오늘 착좌의 의미는 권좌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죽는 자리에 본보기로 오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부(慈父)적인 사랑으로 모든 양들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는 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착좌식에 이어 신임 부산교구장 황 주교는 첫 공식 활동으로 부산교구 사제 11명, 부제 8명에 대한 서품식을 주례했다.

천주교 부산교구는 2006년 말 현재 신자수 399,249명, 본당 106개소, 성직자 306명이다. 황철수 바오로 주교는 1953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대구 선목 중학교와 대구 대건 고등학교를 거쳐 대건 신학대학 대학원(현 광주 가톨릭대학교)과 독일 아이히슈타트 잉골슈타트 가톨릭대학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고 1983년 2월 5일 부산교구 사제로 서품됐다. 황주교는 망미 본당 보좌와 주임신부, 주례 본당 주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메리놀병원 관리부장, 토현 본당 주임, 교구 선교사목국장, 사무처장, 성가정 본당 주임을 거쳐 2006년 1월 17일 부산교구 보좌주교에 임명된 바 있다. 황주교는 현재주교회의 성직주교위원회 위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산교구 사제와 부제 서품식

부산교구는 12월 28일 신임교구장 착좌식에 이어 11명의 사제서품과 8명의 부제서품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강론에서 신임 교구장 황철



▲ 부산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미사 봉헌

수 주교는 “사제는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목자로서 삶을 다하는 그 날까지 봉사하는 하느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는 이날 서품식에는 황주교의 교구장 착좌식과 함께 이뤄져 3천여 명의 신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성전 안에서 서품미사에 참석한 신자보다 화면전송을 통해 소성전, 성전외곽에서 미사를 드리는 신자가 더 많았다. 교구 신학생부와 연합성가대(지도 윤용선 신부)의 우렁찬 성가는 새로이 시작하는 부산교구 50년의 미래를 보는 듯 웅장하고 힘이 있었다.

본당 평협 회장단 및 재정 분과장 모임

11월 21일 오후 교구 청소년회관 「푸른나무」에서 부산교구 사무처(처장 김정호 신부)가 주관해 본당 평협 회장단과 재정분과장 1일 연수를 실시했다.



▲ 본당 회장단과 재정분과장 연수

주요내용은 예·결산 작성과 편성, 교구 분담금 배정 원칙, 교

구장 사목교서 해설 등의 순서로 진행 될 예정이었으나 연수가 진행 중인 8시경에 교황청으로부터 황철수 주교의 교구장임명소식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인터뷰와 축하식으로 이어졌다.

부산 평신도사도직 신앙학교 제3기 졸업식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 신앙학교(학교장 전동기 신부)는 12월 2일 오전 양산 정하상바로영성관에서 제13기 졸업식을 가졌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이정우 회장과 동문 회장을 비롯 100여 명의 졸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졸업식에서는 지난 5월 입학해 정규과정을 수료한 96명에게 졸업장이 수여됐다. 부산교구 평신도 사도직 신앙학교를 이끌고 있는 선교사목국장 전동기 신부



▲ 신앙학교 제13기 졸업미사

는 강론에서 “신앙학교에서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내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묵상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사회사목국(국장 : 박기흠 신부)에서는 지난 11월 21일(수)과 22일(목) 양일간 사회복지회관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실시하였다. 이날 자원봉사단 70여

명이 참가하여 배추 1,000포기를 직접 절이고 양념 하는 등 사랑을 듬뿍 담아 김치를 만들었다. 완성된 김치는 교구 내 공부방 및 무료 급식소에 전달했다. 한편, 서동, 망미, 문현, 반송, 하단, 범서성당 등 여러 본당에서도 사회복지분



▲ 사랑의 김장나누기에 함께 한 봉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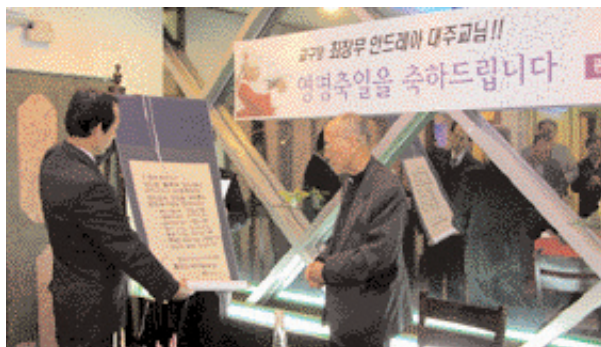
과 및 성모회 회원들이 힘을 모아 본당 내 불우이웃을 위해 김장나누기를 실시하고 있다.

대천성당과 외산공소 자매결연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도농간 협력체제의 하나로 도시본당과 농촌지역의 공소 자매결연을 주선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19일 낮 밀양지역의 예림성당 산하 외산공소와 부산 화명동 대천성당간의 자매결연 체결식을 외산공소에서 가졌다.

교구평협 이정우 회장을 비롯, 많은 임원과 신자들이 결연을 축하하며 본당과 공소간의 상호교류와 지원을 약속하고 결연현판식 제막 행사에 이어 푸짐한 시루떡 잔치로 마무리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전 교구민의 영적꽃다발을 받은 최창무 대주교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 영명축일 축하식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기수 스테파노, 담당사제 김종주 신부)는 교구장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의 영명축일(11월 30일)을 맞아 11월 21일 교구평협과 여성위원회의 전 임원이 마련한 축하식을 열었다. 이번에는 두 분 주교님의 사도좌 정기방문이 있어 미리 축하식을 열었으며,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는 환송식까지 겸했다.

2007 청년찬양축제(성가합창제) 개최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교구 청소년사목국(국장 김영수 신부)에서 실시한 청년 찬양축제에 적극 참여했다. 11월 17일(토) 광주광역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교구 내 11개 본당의 청년성가대 9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성가합창제 형식으로 열린 청년찬양축제는 4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청년들이 공동체



화합을 통해 어울리는 마당이 되는 문화잔치가 됐다. 이날 합창

제에서는 문흥동, 농성동성당 연합팀인 “까르페디엠”이 사랑상을, 남동성당 “유빌루스”팀이 믿음상을, 임동성당 “소리질러”팀이 소망상을 각각 수상했다.

◀ 염주동성당 ‘아누스데이(Agnus Dei)’ 팀의 공연

사회복지회 창립 5주년 미사에 참여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가톨릭사



▲ 축하연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이재술 신부

회 복지회 (회장 이재술 신부) 설립 5주년 기념미사에 함께 했다.

지난 12월 14일 광주가톨릭센터 대강당에서 봉헌된 이날 미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수도자, 시설장과 후원회원, 사회복지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함께 모여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 주례로 봉헌됐다. 최창무 대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사회복지는 교회의 사명으로 앞으로 꾸준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박해 중에서도 나눔을 실천했던 신앙선조들을 본받아 우리도 말보다는 삶을 통해 가장 인간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자”로 강조했다.

장애인 송년미사

광주대교구 장애인복지협의회(회장 윤남남 수녀, 담당사제 이재술 신부)는 12월 29일(토) 광주가톨릭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장애인 송년미사를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감사의 마음과 새해에도 축복 가득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교구 내 16개 장애인 시설, 단체의 장애우들이 모여 봉헌했다. 미사 후 다과회를 하면서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국평협 회원 단체 소식

한국가톨릭의료협회

2007 정기세미나와 임시총회 개최

11월 22~24일 무주 리조트에서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최영식 마티아 신부)는 2007년도 정기세미나와 임시총회를 11월 22~24일, 2박 3일간 일정으로 전라북도 무주리조트에



▲ 2007 정기세미나

서 열었다. 이번 정기세미나는 가톨릭병원협회의 회원병원들과 가톨릭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약사회의 임원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존중, 겸손, 헌신’의 의미를 현 의료 환경에 접목시키고 창조적 경영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서번트 리더십’을 주제로 진행됐다.

모두 250여명의 병원 보직자들이 참석한 이번 모임에는 ‘정호’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역자인 한국블랜차드컨설팅(주) 조천

제 대표가 강사로 초청되어 열 편 강의가 펼쳐졌다.

22일에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임시총회가 열렸으며, 이 밖에 2007년 해외의료선교사업 보고와 사진 전시회가 정기 세미나와 함께 진행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지난호 기사 정정〉

2007 11호 평협소식의 25면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제20주년 기념 한·일운영위원회 후쿠오카에서 개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최영식 마티아 신부)는 일본 ‘성마리아병원 그룹’과 해마다 양국을 오가며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일가톨릭의료사업 교류위원회를 지난 10월 17일에서 20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었다. 한편 21주년 한·일 정기운영회는 2008년 4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 가톨릭경제인회

송년감사미사와 제15회 자랑스러운가톨릭경제인상 시상식



▲ 자랑스런 가톨릭 경제인상 시상식 후 정진석 추기경과 기념촬영

지난해 12월 15일(토) 한국가톨릭경제인회(회장 박광순 대

건 안드레아, 담당사제 조학문 바오로 신부)는 전 회원과 회원가족이 함께 한 가운데 주교좌 명동성당에서 송년감사미사를 봉헌하고 제15회 자랑스러운 가톨릭경제인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제15회 경제인상은 경제인회 김재윤 부회장(한림제약)이 수상했다. 김 부회장은 생명존중이라는 의약업의 숭고한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공로로 이 상을 받았다. 특별공로상은 이교우 자문위원(스카이 상호저축은행 고문), 우인성 부회장(인터비즈시스템 회장)과 최병설 부회장(정한실업 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교우 자문위원은 우리 회 초창기부터 임원으로 봉사와 후원을 하며 특히 나자로마을 돕는 일에 앞장서왔고, 우인성 부회장과 최병설 부회장은 교회와 사회단체 여러 곳에 봉사와 지원을 다해온 기업인이자 신앙인으로 모범을 보여주면서 가톨릭 경제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이 상을 받았다.

2006년 광주대교구 수상에 이어 이번 모범교구상은 2007년 처음으로 개최된 제1회 한국가톨릭청년대회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제주교구 경제인회가 받았다. 제주가톨릭경제인회(회장 김창부)는 적은 인원이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신심을 다져가며 전 회원이 한 마음으로 교구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내실 있는 단체이다.

13회를 맞이한 모범근로자상은 서울대교구 관리국 기계실에 근무하는 인우영 기관장이 받았다.

한국 가톨릭여성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 월례회에서 '통합가치로서의 복음적 가치'를 주제로 강의하는 박홍 신부

한국 가톨릭 여성협의회(회장 권경수, 담당사제 민병덕 비오 신부)는 지난 11월 27일 (화)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

에서 가진 월례회에 서강대학교 이사장이며 영성신학 박사인 박홍 신부를 초청해 '통합가치로서의 복음적 가치'라는 주제 아래 오늘날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중심가치)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

서울 여성연합회 송년감사미사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회장 권경수,



▲ 송년감사미사에서 성금을 전달하는 권경수 회장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12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성당 포스트 홀 소성당에서 송년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나눔의 잔치를 벌였다. 여성연합회는 해마다 바자 수익금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설 재활용 매장인 '명동 사랑마트 수익금' 그리고 은인들의 기금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소외된 여성과 장애우 시설에 기

금을 전달한데 이어 이번 나눔의 잔치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인 '막달레나의 집'과 미리암 이주여성 상담소, 가톨릭 여성의 전화, 에이즈 환우 시설, 조순가정 등에 각각 성금을 전달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회장 정은화 다미아노, 담당사제)는 12월 1일 오후 한국이사회에서 제13대 회장선거를 통해 새 회장에 대구대교구 이사회 정해정 요셉 회장을 선출했다.



▲ 신임 정해정 오 후보 두 분과 전국 15개 교구 섹 회장

이사회 회장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선출된 정해정 차기 한국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한국이사회 회장의 직분이 맡겨진 것에 대해 하느님과 각 교구 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길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대구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장의 역할에서 이젠 더 큰 곳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느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성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장은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각 교구 빈첸시안의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데 역점을 두고 도시와 농촌교구와 열악한 교구간의 결연을 통해 일치를 도모하도록 유도하고, 전국적인 봉사체험활동을 계획해서 빈첸시안의 홍보와 일치, 화합을 위

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또한 교“교회 안팎의 기관들과도 협력 체제를 강화 하겠으며, 기업과 학계, 교구 사회복지회, 지역사회 복지기관들과의 협력 체제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하며, 빈첸시오의 지속적인 활동에는 재원마련이 필수적인데 재원마련을 위해 수익사업을 검토하고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와 이주민여성을 돕는 일들도 진행할 것”을 천명했다.

빈첸시오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전국의 빈첸시오인들의 영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밝힌 정회장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각 교구 회장님들의 뒷받침 없이는 못하는 것이므로 모든분들의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한국이사회를 이끄는 일꾼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동 정

한홍순 한국평협 회장, 이탈리아 친선공로 훈장 받아



난해 12월 5일 서울 한남동 주한 이탈리아 대

사관저에서 마시모 안드레아 레제리 이탈리아 대사로 부터 이탈리아 친선공로 훈장(Order of Star of Italian Solidarity)을 받았다. 교황청 그레고리오대학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외국어대 교수로 재직 중인 한 회장은 한국과 이탈리아간 경제 협력을 비롯한 양국간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 회장은 다양한 논문과 저서를 통해 이탈리아 경제·사회 전반을 소개하는 한편 특별히 한국·이탈리아 수교 120주년을 맞아 2004년과 2005년 각각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열린 기념 심포지엄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한홍순 회장 외아들 결혼

한국평협과 서울대교구 평협 회장을 맡고 있는 한홍순 회장은 지난 1월 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외아들 세원 베드로군의 혼인예식을 치렀다. 이날 혼인미사는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주례하고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민병덕 신부, 전주 교중앙협의회 관리국장 한영만 신부가 함께 집전했다.

손병두 한국평협 상임고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에 선출

한국평협과·서울평협 상임고문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손병두 총장은 1월 4일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제14대 차기 회장으로 추대됐다.

변진홍 위원 국민훈장 동백장 받아

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위원인 변진홍 야고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은 12월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열린 유공자 훈장 수여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해온 변 총장은 민간부문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해 1995년 10

월 범종단 북한수재민돕기 추진위원회를 구성,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물꼬를 트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을 비롯해 1997년부터 남북 종교교류를 주도해 민족 공동행사 추진본부를 구성, 3·1민족대회를 이끌어내는 등 민족화해와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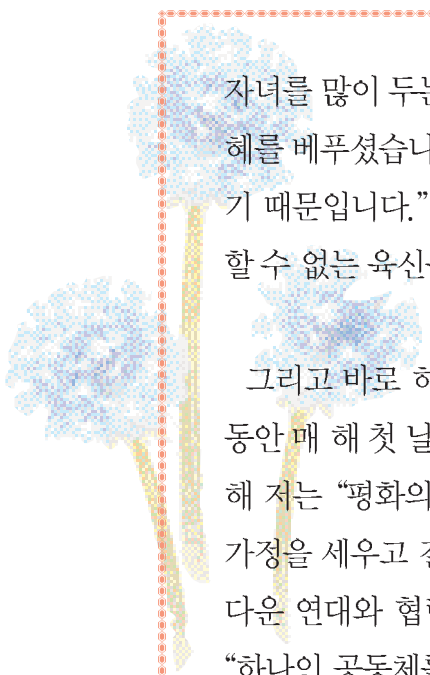
<교황님의 가르침>

다음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2008년 1월 1일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하신 삼종기도 훈화말씀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 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가 모든 이에게 평화롭고 유익한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이 한 해를 성모님의 천상 보호에 맡겨 드립니다. 오늘 전례에서 우리는 그 분을 가장 오래 되고 중요한 칭호인 “천주의 성모”로 부르며 그 분께 간청합니다. 주님 탄생 예고의 날 천사에게 “예”라고 하심으로써 동정녀께서 성령의 작용으로 영원한 말씀을 잉태하셨고 성탄 날 밤에 그 분을 낳으셨습니다. 때가 참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동정녀께서 하느님의 참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마리아께서 받으신 이 엄청난 선물은 그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많이 두는 동정녀이신 그 분을 통해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왜냐하면 그 분을 통해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를 맞아 들이기 때문입니다.”(본기도 참조) 그러므로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외아들에게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육신을 주신 뒤에 믿는 이들의,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요 인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름으로 우리는 40년 동안 매 해 첫 날을 세계 평화의 날로 지내 왔습니다. 올해 세계 평화의 날을 지내기 위해 저는 “평화의 공동체인 인류 가족”이라는 주제를 택했습니다. 사회의 필수 세포인 가정을 세우고 결합시키는 바로 그 사랑이 지상의 백성들 간에 한 인류 가족의 구성원다운 연대와 협력의 관계를 세우는 일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하나인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민족의 기원은 하나이고, 그 궁극 목적도 단 하나 곧 하느님이시다.”(「우리 시대」, 1항)라고 천명할 때 바로 이 점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사회와 평화는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의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에서 말씀 드리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행여 모르고서라도, 가정 제도를 방해하는 이는 결국은 평화의 으뜸 일꾼을 약화시키는 것이기에 국가나 국제 공동체 전체의 평화를 훼손하게 됩니다.”(5항) 더욱이 “우리는 우연히 서로 모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남자와 여자로서 따라서 형제자매로서 같은 길로 나아갑니다.”(6항) 따라서 각자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떠맡고 그 분에게서 자신과 타인의 존재의 근원을 알아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에서 인류를 “진정한 자유를 증진하고 강자의 억압에서 약자를 보호해 주는 공통된 법”(11항)을 토대로 한 진정한 공동체로 건설해 나갈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마리아님께서 평화를 위해 끊임 없이 일하고 있는 교회를 북돋워 주시고 2008년에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지내는 민족들의 공동체가 진정한 연대와 견고한 평화의 길을 걸어 나가도록 도와 주시기 기원합니다.